

# 노년기의 자아존중감과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

진 연 주(제주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부 강사)

최근 길어진 노년기로 인해 노인들은 경제적 빈곤문제, 정신적·신체적 건강문제, 부양문제 뿐만 아니라 늙음 자체가 초래한 직업과 역할의 상실, 배우자 및 주변지인들의 사별로 인한 사회적 유대관계의 상실, 고독감과 소외감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하게 되고 살아갈 욕망을 잃기도 한다. 즉, 노년기의 증가는 신체적·정신적·사회심리적인 개인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노년기의 자아존중감 정도를 알아보고,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년기의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개인관련변수, 경제관련변수, 심리관련변수, 복지서비스경험관련변수를 연구모델에 포함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의 2007년 한국복지실태조사의 원자료 중 65세 이상 노인 2,077명을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기의 자아존중감 수준은 10점-40점의 범위 중 28.18점으로 보통수준이었다.

둘째, 노년기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배우자, 건강보험가입여부, 직업유무, 생활비, 공적연금 수급, 자산, 주택소유, 배우자와 관계만족도, 여가생활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 경제생활서비스 경험, 건강증진서비스 경험, 기타서비스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노년기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쳤던 변수는 모델1에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배우자유무, 건강보험가입 여부였다. 모델2에서는 교육수준, 건강상태, 배우자 유무, 건강보험가입 여부, 직업유무, 공적연금 수급여부가 유의한 영향변수로 나타났다. 모델 3과4에서는 교육수준, 건강상태, 직업유무, 배우자와 관계만족도, 여가생활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심리적인 변수인 만족도가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는 노년기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기초적 조사이며 앞으로 다양한 노년기의 특성을 반영한 보다 포괄적인 후속연구를 위한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